

‘이색체험’ 탐진강 전국 수중줄다리기

140년 전통 장흥고싸움 모티브 ‘의’와 ‘충’ 화합 한판 대결 29일 오후 4시 첫 대회...참가팀 25팀 한정·내일까지 접수

오는 28일 막을 올리는 제10회 정남진 장흥물축제에 중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수중줄다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흥군은 올해 수중줄다리는 관광객과 군민의 참여를 높여 화합과 즐거움을 더한 새로운 경기방식을 선보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중줄다리는 14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장흥고싸움을 재현한 것으로 국민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영자 영자! 줄로 하나 되는 어머니 풀 같은 장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수중줄다리는 장흥고 아래 탐진강 물속에서 펼쳐진다.

29일 오후 4시에 펼쳐지는 첫 대회에는 장흥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해 시원한 한판 대결로 분위기를 달군다.



본 경기인 30일에는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의 운영으로 스포츠줄다리기 혼성 10인제 경기가 펼쳐진다.

선수단은 남자선수 6명과 여자선수 4명으로 구성되며, 혼성 선수단의 체중 합계 740Kg 이하로 제한된다.

참가팀은 25팀으로 한정되며 오는 21일 까지 이메일(asiantowf@hanmail.net) 또는 팩스(02-418-7332)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팀당 5만원이다.

수중줄다리에 참여한 팀에게는 풍성한 시상금이 준비돼 있다.

1위 1백만원부터 25위 10만원까지 참가팀 전원에겐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며, 8위까지는 상금의 50%를 지역농산물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장과 신발 착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선수보호복, 벨트, 장갑 등의 사용도 경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김성 군수는 “수중줄다리는 장흥고싸움의 전통을 형상화 한 프로그램으로 예년 보다 훨씬 풍성하고 박진감 넘치도록 재구성했다”며, “관광객과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02-2264-9008, 010-2207-0277)에 문의하면 된다.

장흥=김종민 기자



여수시 돌산을 송시체협교육장에서 어린이들이 미꾸라지 잡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여수시 “올해 여름 휴가는 즐길거리 가득한 농촌으로”

농촌교육농장·농촌전통 테마마을·농가맛집 등

여수시가 농촌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가맛집으로 여름 휴가객을 유혹하고 있다.

먼저 여수시 내에는 돌산읍 금봉리 ‘송시체협교육장’과 소라면 가사리 ‘서둘러다육식물원’ 등 두 곳의 농촌교육농장이 있다.

송시체협교육장은 농사체험과 함께 물놀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고, 서둘러다육식물원에서는 도예·다육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도 두 곳이다. 갯벌노을 축제로 유명한 소라면 사곡리의 ‘갯벌노을마을’과 돌산읍 울림리에 있는 ‘돌산갯장터마을’이다. 이곳에서는 저렴

한 비용으로 숙박을 하며 테마별 체험을 할 수 있다.

금오도에 자리 잡은 농가맛집 ‘비렁길 자연밥상’은 비렁길을 트레킹하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쯤 둘러봐야 할 곳이다. 관광객들은 비렁길 자연밥상에서 금오도의 산과 들, 바다에서 자란 농·수·특산물을 즐길 수 있다.

농촌교육농장과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가맛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농촌진흥과(061-659-44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 여름 휴가는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농촌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산림생태 무법자 칩덩굴 제거 ‘구슬땀’

입업후계자협회·의용소방대·번영회 등 참여 활발

장흥군은 지난 6월부터 자체사업비와 정책금기금 예산을 투입해 군 전체 10개 읍면 82노선 725km와 조림지역에 대한 칩덩굴 제거에 나섰다

한 강력한 번식력과 왕성한 생장력을 가지고 있어 산림생태 교란과 경관저해의 골칫거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도로변과 조림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해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칩덩굴 제거작업은 주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내 고장 가꾸기, 숲속의 장흥 만들기 등 군정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번 칩덩굴 제거작업에는 숲가꾸기 작업단을 중심으로 입업후계자협회, 의용소방대, 읍면번영회, 청년회, 자율방범대 등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칩덩굴 제거사업이 활기를 띠는 것은 개최 10주년을 맞는 정남진 물축제와 제26회 입업후계자 전국대회를 앞두고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의지도 담겨있다.

입업후계자협회 배권세(남, 55세) 씨는 “작업해보니 칩덩굴의 심각성과 녹지경관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다”며, “너 많은 주민들이 녹지 환경을 가꾸는 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완도군, 인구 6만 회복 위해 전담팀 구성

지역인구정책담당 신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완도군은 지난 14일 저출산·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신설했다.

최근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완도를 포함 17개 지역이 인구감소로 통계합 또는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군은 새정부가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대책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전담팀을 꾸려 정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인구정책담당을

담당 1명 주무관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고 ▲ 저출산·고령화 종합계획 수립 ▲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저출산 시책 발굴·추진 ▲ 인구늘리기 추진 ▲ 지역인구통계 추계 및 분석 ▲ 청년정책 수립 ▲ 귀농·귀어가 정책수립 지원 및 홍보 ▲ 도시민 유치 종합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자체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인구증가 기반구축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홀통 해수욕장서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무료 운영



무안군은 초·중·고 및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4일간

면 홀통 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이번 체험교실은 대중화 되어 가고 있는 해양레포츠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해 보고 방학 기간 색다른 체험을 즐기고 싶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교실 운영내용은 윈드서핑, 카이트, 담기요트, 카약 등 레포츠 체험과 함께 위급상황 시 응급처치법인 심폐소생술 교육, 물속에서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생존수영 교육 등이 실시되며, 운영시간은 오전11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다.

참가접수는 단체 10명 이상인 경우 무안군체육시설사업소(☎061-450-4102)에 이달 21일까지 사전접수가 가능하며, 일반 개인은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진다. 체험참가자의 준비물로는 편한 복장, 여벌 옷, 수건, 선 블록, 모자, 세면도구 등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해양레포츠 체험은 평소 접하기 힘든 만큼 색다른 휴가나 방학을 보내고 싶은 주민이나 학생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양레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물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 알게 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